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잘가요 2021... 코로나19 장기화 터널의 끝을 향해



어느날 밤 터널을 지나는 차량의 불빛이 그린 궤적 위로 119 구급차량이 달리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 아들의 끝이 보이는 듯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긴 터널을 지나 출구를 향하는 119 구급차량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출구를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 '탄력'

전북도, 900여억원 총사업비 추가 확보... 군산시 등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간간한 적정성 재검토 관문을 넘고 900여억원의 총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합한 파고를 넘어 새만금에 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30일 새만금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단지 및 시스템 설계, 통합관제센터 설계 및 구축, 기술개발)과 계통선로 건설사업, 20M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과 공동 대응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전북도와 군산시,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참여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 한양대학교, 대한전선(주),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엘에스에트릭(주), 그리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군산시민발전(주)이 협약에 참여했다.

산도 당초 대비 908억원이 증액된 1,721억원을 확보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적정성 재검토와 사업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기존사업과 증액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단지 및 시스템 설계, 통합관제센터 설계 및 구축, 기술개발)과 계통선로 건설사업, 20M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과 공동 대응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전북도와 군산시,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참여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 한양대학교, 대한전선(주),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엘에스에트릭(주), 그리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군산시민발전(주)이 협약에 참여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및 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에 위치한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21억원이 투입돼 5만㎡의 연구 단지를 조성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설비(20MW)와 전력망, 전력 변환설비, 수전해 설비, 수소출하설비, 수소충전소(버스급, 50kg/h) 및 수소 버스(4대), 디지털트윈 시스템 설비가 구축되며, 컨트롤 타워인 통합관제센터(5,479㎡, 3층)를 통해 가상-현장 실증간 호환성 검증 및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가이드라인, 활용사례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구축되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인한 전력 계통 불안정성 및 출력제한 문제가 해결되며,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가상 실증 인프라의 선제적 도입과 세계 연구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사용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에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및 인근 배전계통의 품질 유지가 가능해져 전북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촉진으로 에너지 R&D 기업의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에 필요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전북도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인년 새해, 초심을 잊지않고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1월 3일 신문 발행합니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서민경제 살리기 목적 달성

생산유발 효과 2274억
부가가치 효과 1172억

전북도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1,746억원에 대해 전북연구원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에 생산유발효과는 2,274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172억원이며, 고용수자는 3,722명으로 나타나 도가 당초 목표한대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살리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버팀목으로써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각 시·군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2,10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1,102억원의 부가가치발생, 3,514명 고용이 발생했다.

전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10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1,526억원의 부가가치발생, 4,291명 고용이 창출됐다.

재난지원금은 선불기프트로 지급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 176만4,756명이

수령했고, 사용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경기동행종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급격한 하락한 지수는 국가재난지원금과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간동안에는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심리지수 또한 지난해 4월과 9월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지난 7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반등해 회복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재난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지원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또한 공공지원 필요성과 결부시켜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로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과 경제적 수요를 끌어올리는 전략과 함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유통성 지원 등의 공급측면에서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 2022학년도 정시 1705명 모집

수시모집 미충원 298명 이월...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30일부터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군 885명과 나군 810명 등 모두 1,70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298명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선발 인원이 당초보다 늘었다.

먼저 가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으로 스마트관학과를 비롯해 농생대(생명자원융합학과 제외), 사범대, 상대, 생활대, 의대, 인문대, 자연대, 치대, 글로벌융합대에서 885명을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29명, 치대 5명 등 34명을 뽑는다. 치대의 치의예과는 올해 처음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간호대, 공대, 사회대, 수의대, 약대, 환경대에서 694명을, 예체능 계열에서 104명을 각각 선발한다. 약대의 약학과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

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예체는 계열을 제외하고 가·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뽑는다. 예체는 계열의 경우 학생부와 수능, 실기고사 성적비 반영된다. 민학도 전형(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은 수시모집과 동일하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와 유웨이 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또 예체능 계열의 경우 내년 1월 14일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謹賀新年

이 맛이 청정라거다

호주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이 되다!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